

< 海外情報 >

長期沈滯에 들어선 國際肥料情勢

= 74年 이후 7年만에 처음보는事態 =

正確한 情勢分析과 對應策이 바람직

올봄부터 混迷狀態를 거듭하면서 活力을 잃기 시작한 國際肥料情勢는 아무래도 改善의 徵兆가 보이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長期沈滯露髓氣속으로 더욱 빠져들어가고 있는것 같다.

關係專門家들은 이같은 情勢에 대하여 74年以後 “7年만에 처음보는 나쁜事態”라고 보고 있다.

國際肥料情勢는 올해에 들어서 우선 美國의 春肥가 期待에 어긋났고 海外購入國의 需要가 줄어들며 다 美磷肥(DAP 등)의 價格下落 등으로 混迷의 樣相이 짙어졌는데 그후 이러한 狀況은 對印度 美DAP輸出價格의 暴落에 依해 더욱 拍車를 加하게 되었다.

또 이 DAP暴落을 前後해서는 窒肥市況의 下落은 물론 加里, 磷鑛 등의 價格도 弱화되기 시작함으로써 이때까지 꾸준히 上昇

과어 오면 國際時勢는 큰 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國際時勢의 下落은 亦是 世界需給關係의 Balance가 끊어질때 起因한 것이며 그것은 海外肥料購入國이 第2次 石油危機後 價格이 더욱 오름으로서 外貨事情으로 購買를 留保하였을뿐 아니라 特히 大量購入國인 印度나 中共등 이 事態觀望으로 돌아선때 起因하고 있다 할 것이다.

印度나 中共은 例를 들어 窒肥(尿素等)의 경우 年間 數百萬噸에 달하는 龐大한 量을 購買함으로 이것을 抑制 내지는 保留하든가 購入時限을 늦춘다고 한다면 그 影響은 實로 큰 것이다

이와같이 昨수의 國際肥料情勢는 海外需要의 冷却, 購買量의 抑制에 따라 價格도 窒肥의 大幅下落을 中心으로 窒肥도 念迷한 下落傾向을 나타냈고 이것은 最近 加里塩에 까지 波及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窒肥價格도 앞으로는 上昇에 終止籜를 찍을 可能性이 있다.

如何間 國際肥料情勢는 요즘 “數年만에 처음보는 沈滯期”에 들어갔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 우리나라業界의 경우 輸入原料價格의 下落등 Plus 面도 있겠으나 그보다도 年間 100萬噸을

輸出해야 할 우리의 處地에서는 深刻하게 받아 들여야 할
問題點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海外動向에 더욱 깊은 注意와 함께 正確한
情勢分析을 하여 이에 對處할 慎重한 對應策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尿素의 Spot 價格 下落傾向

美 Gulf FOB \$ 160 臺의 水準

最近의 商社情報에 依하면 尿素의 輸出價格이 요즘에 이르러 더욱 弱勢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例를 들면 美 Gulf 渡로는 FOB bulk \$ 160 臺가 되고 있다한다. 이는 한때의 同 \$ 190 近辺에서 본다면 \$ 20 程度가 下落한 것인데 이와같은 下落相은 美側의 需給關係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 同情報에 의하면 소련 尿素의 對 Brazil 輸出에서도 最近 C & F bulk \$ 191 程度의 低水準值의 契約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